

今后的 造林問題

本會 專務理事 李 在 石

1. 前 言

아마 1978年度에 있었던 일로 記憶된다.

1979년부터 始作할 第2次 治山綠化 10個年 計劃(案)을 짜고 있을 때 當時 농림신문에 筆者가「第2次 治山綠化 10個年計劃에 對한 提言」이란 論壇에 寄稿한 일이 있다.

그 主要內容인즉은 ①急變하는 우리나라 產業構造에 隨伴하여 農山村人口의 過疎現象이 從前에 農業勞動이 豊富한 時節의 年平均 造林物量을 到底히 消化할 수 없으므로 年平均 造林量 15萬 ha를 大幅 줄일 것을 提議했다.

② 또 特히 適地가 적은 이태리 포플러 현사시等 速成樹 年平均 造林物量 7萬 5千 ha를 大幅 줄일것을 指摘했다.

③ 그리고 앞으로의 林業政策은 從前의 國民植樹 乃至는 國民運動에 依한 造林領域을 벗어나 經濟政策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主張한바 있다.

實은 外材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絶對多數를 차지하는 外材가 國內木材價格을 左右하는 판이므로 林政으로 國內木材價格 保護對策을 180萬山主앞에 提示할 것을 要求했다.

그 理由는 經濟의 흐름은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듯 造林해서 收支가 맞으면 造林을 억지로 권장할 必要가 없이 造林할 사람이 저절로 늘어난다는 이야기다.

④ 다음은 農業勞動력이 激減하는 對策으로 林業 即, 造林, 撫育, 保護, 伐出等 一連의 作業이 機械化하자면 先行條件이 林道設置다.

그래서 計劃期間內에 集中的으로 林業의 投資를 林業間接資本 形成에 投下할 것을 建議한 바 있다.

以上の 提案이 3년이 지난 오늘 第2次 治山

綠化 10個年 計劃을 놓고 아직 決定은 되지않았지만 當初年 15萬 ha 造林物量은 大幅 줄어야 하는 試案이 나왔다.

特히 速成樹造林問題는 造林山主로부터 甚한 批判을 받고 있다.

뿐만아니라 木材價格은 他物價와는 正反對로 生産費를 下廻하는 늘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또 林業에 쓸수 있는 機械가 있다 하더라도 林道가 없으니 造林環境은 極惡에 達한 感이 없지 않다.

그러므로 本論은 今後의 造林에 던져진 問題點의 실마리를 어디서부터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對하여 몇가지 所見을 적어보자는데 그 뜻이 있다.

2. 國民經濟와 造林

或者는 이제 山이 몰라볼 程度로 좋아 졌으니 앞으로는 造林投資는 크게 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를 한다고 들었다,

또 우리나라 山林 總生産額이 國民 總生産額의 1.1% 內外이므로 이를 보고 山林投資를 서글프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은 事實이다,

요사이 우리는 比較優位論을 많이 들고 나오는데 外國產 나무값이 國內產보다 싸고 質이 좋아서 原木을 輸入하는 것이 越等 낫다는 理論을 展開하기도 한다.

그러나 以上の 論理는 그것이 一意는 있을 망정 잘못된 生覺이라 보여진다.

우리가 30年前에 解放을 마치고 그동안 抑壓된 自由를 放任으로 받아들여 無分別한 盜伐이 繼續되어 山이 황폐될대로 되었다.

그 結果 只今까지 造林政策은 우선 經濟性有無

에不拘하고 綠化造林에 心血을 기울여온것은 틀림없다.

또 造林技術의 側面에서 봐도 多少의 施行借誤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大部分 척박한 林地에 肥料木 같은것을 심어서 山林表土를 固定하고 林地가 肥沃하게 된 후에 收益性이 높은 高級樹種을 造林해야하는 造林生態學的 見地에서 그것이 造林 順序이다.

그러므로 只今 산이 푸르게 되기는 했으나 眞짜 造林은 只今부터 해야한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只今까지는 山林收益이 적어서 山林總生産額이 國民總生産額에 차지하는 比重이 極히 낮다할지라도 林業經營이 제대로만 되면 廣濶한 林地에서 生産 潛在力은 無視할수가 없다.

지금 年間 厚木導入에 所要되는 外貨가 10 億弗 内外인바 우리가 산을 잘 가꾸어 木材를 自給할 수 있다면 10 億弗의 外貨消費를 줄일수가 있다.

現在 많은 工產品을 生産해서 輸出을 한다하더라도 原資材의 大部分을 輸入 充當하자면 稼得額 自体가 10 億弗이 되기 까지는 대단한 輸出 高를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알뜰한 造林을 해서 木材自給을 達成할 수 있다면 얼마나 國民經濟에 미치는 影響이 큰 것인가를 理解할 수 있다.

3. 造林物量

第2次治山綠化 10 個年計劃期間中 植栽造林의 物量을 보면 總速成樹가 75 萬 ha 長期樹가 70 萬 ha 有實樹가 5 萬 ha 合計 150 萬 ha을 造林하게 되어 있다.

이의 年平均事業量은 速成樹 7 萬 5 千 ha 長期樹 7 萬 ha 有實樹 5 千 ha 를 各各 計劃하였는바 그동안 木材價格의 沈滯로 因한 自力造林量의 減少 造林勞動力의 不足等 造林을 둘러싼 外的 要因이 造林量을 줄이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그래서 年間 造林物量을 調整하기 爲하여 試案이 나온것을 보면 年間 速成樹 3 萬 ha 長期樹 4 萬 8 千 ha 有實樹 2 千 ha 로 되어있다.

이 試案에 따르면 當初 10 個年計劃과 比較하여 速成樹는 40% 長期樹는 69% 有實樹는 40% 線으로 調整되었다.

結果의으로 年 15 萬 ha 造林할것을 8 萬 ha 로 調整한 試案인데 그렇다고 보면 當初計劃보다 47%의 事業量을 줄인다는 結論이다.

지금으로부터 3 年前에 10 個年計劃을 樹立할 때나 現在나 造林與件이 物量을 절반이나 줄여야 하도록 큰 變化는 없었다.

事實上 山林行政을 專擔하는 中央山林廳이 있고 不用樹種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林地狀態를 감안한다면 造林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年 10 萬町步의 造林은 지켜가야 할 것이다.

造林地 問題로 많은 批判을 받고있는 速成樹는 年 3 萬 ha로 調整은 한다하더라도 長期樹는 當初計劃대로 年 7 萬 ha를 造林해야 될줄 믿는다.

우리보다 林相도 좋고 蓄積도 높고 不良 林木이 없는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 西獨 등에서 年間 長期樹 造林物量이 우리보다 더 많다.

이러한 人工造林國이 天然更新이 不可能 해서 每年 莫大한 人工造林을 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全世界的으로 닥쳐 올 木材공항기에 對備하기 爲함이다.

우리나라는 天然更新에 期待를 걸 優良樹나 萌芽의 伐根이 至極히 적다는 事實을 直視한다면 天然更新에 너무 큰 希望을 거는 것은 크게 危險하다.

4. 今後的 造林

우리는 그동안 造林에 있어서 技術的으로 過誤를 범한 것도 많다.

時代潮流를 타고 綠化라는 巨創한 口號 밑에서 比較的 成熟된 林地 다시 말하여 植生遷移過程에서 우리가 要求하는 高級經濟樹種을 심어도 될 땅에 砂防樹인 러기다송을 심은 곳이 많다.

특히 京畿, 全南地方에 이런것이 많다. 이런 林地는 帶狀으로 漸次 樹種更新을 해야 한다고 본다.

京畿道地方은 잣나무 全南地方은 삼 편백으로 樹下植栽도 可能하기 때문이다. 輪伐期가 多少 길어도 成熟土壤에는 價値높은 樹種으로 바꾸어져야 한다.

지금 삼 편백은 우리 나라에서 成長이 떨어져 상당히 批判을 받고 있지만 南嶽地方, 成熟土壤에 이를 代替할만한 長期樹가 없다.

西嶽같은 곳에 가보면 普通 伐期가 100年이 넘는다. 때로는 150~200年도 있다. 造林樹種이 間或 鄉土를 달리했을때 鄉土보다 成績이 낡은 樹種이 없는것은 아니나 造林에 있어 鄉土樹種이거나 鄉土化한것 보다 더 重要한 것이 없는것 같다. 鄉土樹種인즉은 그 地方에서 水河期를 거쳐 危險한 環境에 견디어 왔다는 것이 重要하다.

例外가 있기는 해도 世界 어느 有名한 山林國도 가보면 鄉土樹種을 심어서 한없이 기다리는 林業을 하고 있는것을 보고 들었다.

1980年 겨울추위에 우리나라 漢江以北에서 在來種 밤나무는 한 나무도 凍害를 입지 않았는데 日本에서 導入하여 새로 장려한 밤나무는 상당히 凍害가 甚했고 어떤 圃地는 全滅하다싶이했다.

이런 추위가 몇十年만에 한번 온다 하더라도 100年以上을 기다려야하는 林業에서는 모험이라 아니할 수 없다.

척박한 林地에 砂防을 하고 풀씨를 뿌리고 오리나무等 肥料木을 심은 땅에 只今 잎이 떨어지고 흙이 쌓여서 땅이 많히 좋아진 곳이 많다.

여기에 樹種更新造林을 해야하는데 이제 造林이 다 된것처럼 생각하고 있으니 우리는 今後의 造林에 對한 認識을 달리해야 될줄 믿는다.

그리고 오늘날 이 造林의 問題點은 入件費 上昇으로 自力造林은 말할것도 없고 國庫補助造林도 苗木代 肥料代 補助만으로는 山主들이 달갑게 생각을 하지 않는다.

全体 造林費의 折半以上을 人件費가 點하기 때문이다.

造林物量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多少의 人件費를 補助해 주어야만 實效를 거둘수 있다.

5. 結 言

筆者는 第1, 2次 治山綠化 10個年計劃自體를 踏하고 싶지않다.

다만, 우리 林業 或은 山林長期計劃을 樹立함에 있어 林業政策은 곧 經濟政策인즉 山林을 둘러싼 經濟與件을 거의 疎外視한 것은 本計劃의 흠이라고 하지 않을수 없다.

적어도 長期計劃을 樹立할 때는 計劃期間內의 產業構造의 變化 여기에 隨伴된 農山村의 物動의 變化 이런것들이 檢討되지 않아 計劃한지 3년이 지나지 않아서 事業의 物量을 大的으로 修正을 해야하는 진통을 겪어야 한다.

우리가 바람직했던 것은 第1次治山綠化10個年計劃期間內에는 造林物量의 擴大도 重要했을런지 모르지만 이 期間內에 林業間接資本 形成이 마무리 되어야 했다. 다시말하여 앞으로 急激한 農山村人口 減少에 對備하여 林業을 機械化 또는 機動化할수 있는 林道를 닦아야 했다.

또 林業이 產業으로 발돋움할수 있는 木材價格政策이 確立되어야 했다.

그동안 保護爲主의 山林政策으로 지금 林道가 없어서 우거진 雜木林에 산불이 났을 경우 消防車가 갈수가 없고 雜木을 除去하고 造林을 한다든지 大量으로 發生하는 病蟲害를 動力으로 驅除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않다고 생각한다.

國庫의 相當部分을 林道設置에 投下하고 現在의 農山林人口가 더 줄어지기 前에 樹種更新 造林을 서둘러야 한다고 본다.

앞으로 造林이 收支가 맞는다 하더라도 造林을 할 수 없는때가 올른지 모른다.